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일고찰

- 서구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

이 희 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목 차〉

- | | |
|-----------------|-------------------------------|
| I. 서언 | III. 규모(scale)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양상 |
| II. 생산과 소비의 개념 | 1. 세대 혹은 주거단위 내 |
| 1. 생산 | 2. 취락 내 |
| 2. 생산물의 소비와 재분배 | 3. 취락 간 혹은 광역적 네트워크 |
| | VI. 결어 |

I. 서언

한반도 청동기시대 문화의 생업과 과거의 일면은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발굴자료와 연구를 통해서 점차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물질자료의 편년과 형식학적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이들에서 나타나는 당시의 사회와 경제를 다각도로 복원하는 작업도 사회복합화(김장석 2007, 김승옥 2006)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서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인 수도작의 확산과 정착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의 식물고고학적 연구에서 탄화미의 높은 출현률과 함께, 맥류와 잡곡 등의 다작물의 재배가 가능했던 복합농경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이 규명되었다(안승모 2008). 이와 더불어 남강 유역 일대에서 나타난 대규모의 전작지, 논산 마전리 유적과 같이 관개체계를 갖춘 수전유적을 통해서 상당히 진전된 농경기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곽종철 2002). 이와같은 농경의 발달은 곧 이의 생산과 소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변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물질자료에서 찾으려는 일련의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생산에 관해서는 면적당 벼의 산출량의 추산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 이래 수전의 생산력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이홍중 1997; 곽종철 2002)와 청동기시대 후기에 출현하는 대형의 수혈을 대상으로 저장수혈의 등장이 잉여의 통제와 집중화 및 취락 간 생산과 소비 기능의 분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김장석 2008) 한다는 연구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농경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옥이나 청동제품과 같은 위신재의 제작과 유통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및 실제 한반도 청동기시대 자료의 대입과 적용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문화·기술 수준의 사회에서의 경제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양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선사시대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서구에서의 몇 가지 모델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즉 생산과 분배를 포함한 소비체계와 이들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작용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경제를 규정하는 하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생산은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물질적인 수단을 조달하는데 목표를 둔 모든 활동의 총체이며 인간과 환경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규준(norms)과 인간과 생산의 요소들의 활용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적 규준의 두 범주에 속하는 특성을 보인다(Godelier 1978; Morrison 1994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기술과 생산물의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이 동시에 발현하는 경제체제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생산과 소비의 모델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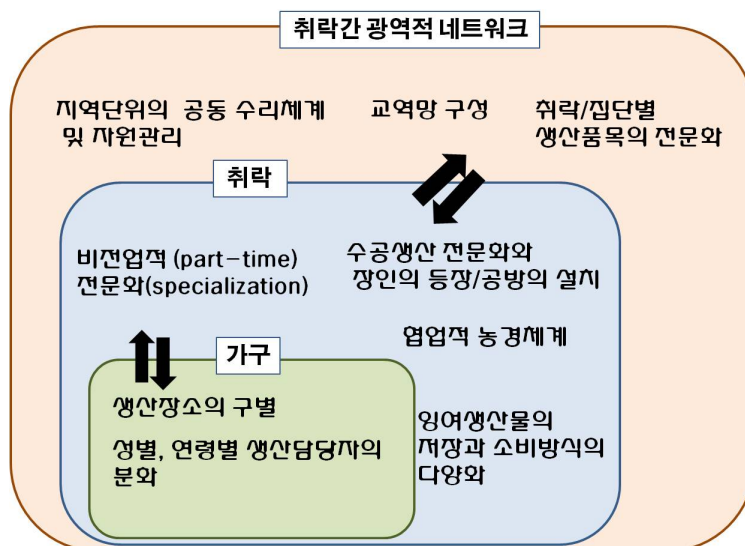


그림 1. 생산과 소비체계의 규모에 따른 구분에 대한 모식도

II. 생산과 소비의 개념

1. 생산

‘생산(production)’의 개념을 목적에 따라서 그 영역을 보다 세분화한다면 첫째는 생계를 위한 생산, 두 번째는 저장, 손실보존, 홍작 등을 대비한 일반적 잉여(normal surplus)가 있으며, 세 번째는 의례, 상호호혜 교환 등을 위한 ‘사회적 생산’ 마지막으로 ‘교역을 위한 생산’으로 나뉜다(Morrison 1994). 그리고 원시사회에서 농경활동과 수공업의 전문적 생산(craft specialization)은 초과적인 생산물을 발생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초과적인 생산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약화(intensification)의 현상을 유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의 집약화(Intensification of production)는 양의 증가와 함께 ‘집중’에 방점이 찍히는 과정으로(Morrison 1994), 기술적 진보, 노동력의 재분배와 같은 생산수단과 에너지의 집중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산활동의 두 축인 농경과 수공업 생산이 집중화되는 방식은 조금 상이하다. 농경생산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한 생산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초기의 다른 수공생산보다 노동력과 물자의 투입의 절대량이 크며, 상대적으로 환경조건이 생산량의 증감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농경생산활동의 지향점은 가능한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으로서 이의 성패는 잉여의 발생도와 연결지어진다. 농경생산체제의 발달과 집약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표지로는 수리시설의 설치, 연작경영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경작기술의 발달, 경작면적의 확대(조방화)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적 복잡화를 들 수 있다(Morrison 1994; Spencer and Stewart 1973). 또한 사회구성원의 노동력을 적절한 농경행위에 시기적, 공간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 및 관리조직의 존재 또한 일종의 집중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집약화를 거쳐 증가하는 농경생산성은 사회에 일반적 잉여(normal surplus)를 넘어 사회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인구부양력의 증대를 비롯하여, 농경지의 소유, 노동력의 활용, 농경활동의 지도, 잉여생산물의 분배 등을 통제하는 엘리트 계층의 정치적 입지가 형성되고 재분배와 생산에 관여하는 엘리트의 통제 및 교역, 축제 등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파생적으로 혹은 엘리트 계층의 의도적 관여하에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계층화를 발달시키고 관념적으로 상징화시킨다(Hayden 2007).

농경생산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수공업의 전문화는 초과생산이라는 기본적 전제는 동일하지만, 실제의 양상은 여러 사회적 구조의 충위를 가지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의 다양성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규모와 조직 등의 면에서 Costin(2001)은

전문화의 성격과 발달정도를 포괄적으로 몇 단계로 구분하였다. 가장 초기의 전문화의 모습은 비상시적이고 일시적인 과다 생산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선물교환이나 축제용의 일시적 수요증가와 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작은 규모의 생산의 형태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의 원시사회에서 이러한 정도의 전문화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보다 분업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형태의 전문화는 비전업적(파트타임) 전문화의 고착과 전업적 전문화의 주기적인 상시화이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토기 생산에서 성별, 연령별로 전담하는 구성원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필리핀 Kalinga-Apayao 지역의 원시부족의 민족지적 관찰의 경우에는 주로 여성들이 생산하는 토기가 주변 지역의 교역에 사용되었다(Stark 1995). 이러한 초보적인 생산전문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농경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혹은 농경생산물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지역으로부터 곡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적인 생산 수단이라는 농경생산력 부족과 한계 가설(agricultural marginal conditions)이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Costin 2001, Harry 2005).

그러나 실제 연구사례에서는 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동인으로서 지목되고 있다. 농경과 수공생산 모두 인구증가(demographic pressure)에 따른 생산력 증대의 필요성, 가용자원의 지리적 한정(locational circumscription)에 의해 적응- 확장- 집약화로 이어지는 생산효율의 증대, 경제악화(economic impoverishment),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 가구/세대 공동체 별로 농경생산물의 부족이나 가구별 수입을 극대화하기 조치에서 시장에서의 추가소득(incentives of the market)을 목표로 하거나, 환경악화와 비예측성(environmental deterioration or unpredictability), 친족기반의 호혜교환(reciprocal exchange demands within kin-based social systems), 그리고 신분상승을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status) 등이 있다(Morrison 1994; Costin 2001; Harry 2005). 또한 환경적인 조건도 전문화를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호호캄 문화기의 Tucson 분지에서의 토기전문화와 교역의 예와 같이 특정광물의 산지에 입지하여 그 이점을 활용한 경우(Harry 2000, 2005)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복수의 변인들이 동시에 동인으로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보다 고도화된 전문화는 장인 혹은 제작자(specialist, 보다 전문적으로 artisan)의 본격적인 등장과 공방(workshop)의 설치에 의해서 제도화(institutional)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장인을 정의하는 몇 가지 특성은 본인을 위한 자급자족적인 생업적인 활동에서 어느 정도 제외되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물질적인 대가를 보상받는다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생산과 그 대가를 수급할 수 있는(independent) 장인이 있으며, 후원자 등에

의해 생산과정이 통제되는 종속적(attached) 장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종종 족장사회에서의 엘리트 계층은 위신재의 공급에 있어 장인과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Peregrine 1991).

공방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하면 분산된 공방(dispersed workshop): 소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 내 수요를 감당하는 생산을 하는 분산된 공방, 공동체적 전문화(communitary specialization): 집단 내에 결집되어 있으며, 자가적인 개인이나 가구 규모의 생산단위로 역시 소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 내 수요를 감당하는 생산을 수행한다. 결집된 공방(nucleated workshop): 단일사회 내에서 공방들이 모여있는 형태로서 이곳에 투여되는 노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분산된 (강제적 성격을 보유한)노동(dispersed corvée): 특정한 경우에만 엘리트나 상위 행정기관을 위한 비전일적(파트타임) 노동을 제공, 결집된 노동(nucleated corvée): 특정한 경우에만 엘리트나 상위 행정기관에 의해 고용된 경우가 있으며 장인의 경우도 개별적, 그리고 집단의 형태로서 공방에 속해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Costin and Hagstrumd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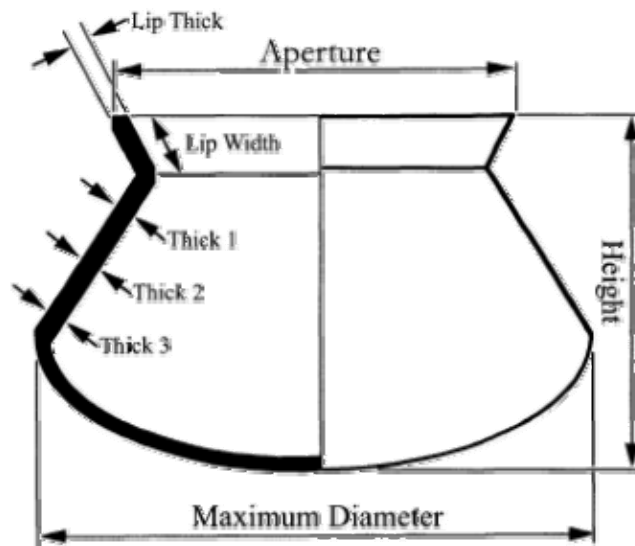


그림 2. 토기의 기술적 속성의 예시 (Roux, 2003에서 발췌)

또한 전문화는 장인집단의 기술의 전수과정을 통해서 생산량 증가 및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생산물의 규격화(standardization)를 유도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규격화의 양상은 수요자의 요구, 장인의 제작기술과 수준, 지역적 전통 등의 변수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가지면서 나타나는데, 의도적으로 시문되는 문양과는 달리 기벽이나 구연부의 형태와 같이 소성

사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적 속성(mechanical attributes)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개체사이의 동질화 정도에 따라 규격화의 발생여부를 구분하기도 한다(Roux 2003; Hayashida 1999) (그림 2). Roux(2003)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토기를 대상으로, Costin and Hagstrum(1995)은 잉카 토기의 기술적 속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기종별로 나타나는 변이정도의 수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격화 정도와 생산형태를 추론하는 시도가 있었다.

2. 생산물의 소비와 재분배

재분배의 형태는 자발적, 의무적, 강요의 성격을 띠며 모든 형태의 교환에서 이러한 속성이 다소간 존재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분배(distribution)라는 용어는 개인과 집단간의 물질이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물품이 이동한 후의 ‘공간’적 패턴을 의미한다. 교환은 원료에서 최종산물의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교환과정은 모든 형태의 전문화와 초과생산의 형태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생산체계와 연동되어 발달한다. 공간적으로 분류하면 생산지 내에서의 생산물의 재분배, 선물(자발적인, 대가가 없는 형태), 상호호혜 교환, 시장교환, 의무적인 전달(세금과 공물 등의 형태)로서 보다 광역적으로 소비되고 재분배된다(Costin 2001).

Ⅲ. 규모(scale)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양상

1. 세대 혹은 주거단위 내

가구/세대 공동체(household level) 내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위한 공간의 발생은 관련 행위의 기능적 분화 및 집중도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생산과 관련하여는 협의에서 간헐적 혹은 비전업적인 파트타임 장인출현 및 노동의 분화를 동반하는 작업공간(locus of production)이 나타나며, 더 공간적으로 확대 및 분화되면 취락 내에서 공방(workshop) 등의 등장으로 본격화된다.

소비의 모습은 곧 사회의 다양한 사회구조 및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위신재의 사용은 말할 것도 없이 일상재이자 농경생산물인 음식(food)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소비하는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고유의 방식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재확인에 의거한다(Gumerman 1997). 농경산물의 개인적인 소비상은 인골자료가 있

는 경우 질소, 탄소 동위원소분석을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형태에 따른 기종에 따른 토기의 조합상(pottery assemblage)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농경생산물의 가구 내 소비상은 다음과 같다. 음식의 준비(preparation)와 가공(processing) 과정에서 생계를 위한 소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식물고고학적 연구는 가공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에서 낱알, 겨, 짚과 같이 식물의 부위별로 잔존물의 종류와 양이 다를 수 있다는 모델을 통해서, 탈곡, 생산지, 소비지, 저장시설 등의 공간의 해석에 대한 사례들을 제공해주고 있다(Stevens 2003).

한편으로 작은 규모에서는 가구 내, 보다 확장하면 취락 내 노동의 분화에 있어서 주시해야 할 하나의 측면은 성별에 따른 작업의 구별이다. 이는 예술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문화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으며, 직조, 토기생산, 농경 및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여성의 역할에 대해 고려한 연구사례가 있다(Costin 2001; 김종일 2009; 김영심 2009).

2. 취락 내 (intra-settlement)

소비양상과 연관된 직접적인 흔적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생산물의 저장장소의 분화를 들 수 있다. 농경의 산물의 잉여와 저장 엘리트 소비양식의 차별화와 대형의 저장장소의 등장은 때로는 종속적 장인의 발생을 암시한다. 그러나 저장시설의 등장과 그 용도 및 발생 정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농경의 기원지 중 하나이자 최초로 인류가 정주생활을 시작한 지역인 근동에서의 저장시설은 초기의 단계에서는 환경의 악화 등에 대비하여 위기관리의 일환으로서 채집으로 획득한 수확물을 소규모의 구덩이에 저장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장시설의 등장은 농경이 정착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는 시기보다 선행하여 정주생활이 정착되는 시기와 맞물리지만, 규모는 작물화 이후에 크게 증대된다(Kujit 2008, 2009).

그리고 이보다 농경이 진전된 후대의 사회에서는 저장시설의 형태와 이의 등장과 소멸과정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 하에서 다분히 초과생산물의 저장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국 철기시대의 특징적인 토축 건조물이자 입지 및 구조에서 상징성이 강한 토루(hillfort)들에서는 곡물을 저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크 형을 비롯한 일련의 수혈저장시설이 등장하다가 철기시대 말기에 로마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라지는 정황이 간취되었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서 이 수혈들이 부족집단의 공동 소유의 저장고로서 기능하며 잉여생산물의 축제(feasting) 등의 대규모 소비를 대비하여 축조되었다는 가설이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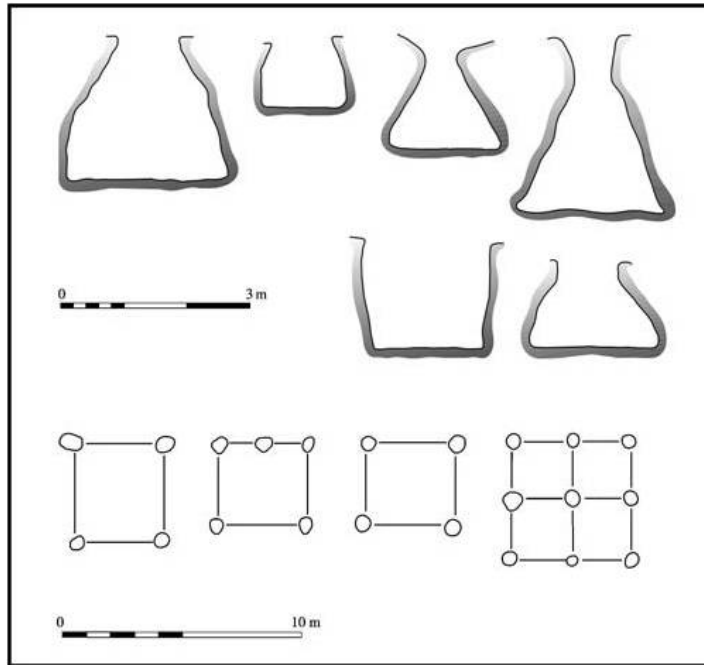


그림 3. 영국 철기시대의 수혈식(위) 저장시설과 고상창고(아래)
(Cunliffe 1991, Van der Veen and Jones 2006에서 발췌).

이들이 사라지게 된 하나의 원인은 후에 로마와의 와인과 장신구류 등의 사치품교역이 늘어나면서 교역의 대상으로서 반출되면서 곡물의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부의 과시방법과 집단 내 계층화의 수단이 대규모의 축제가 아닌 사치성 물품의 소유와 차별화된 생활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이에 따라 대형의 수혈저장이 불필요해 졌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van der Veen & Jones 2007). 저장시설의 등장과 증감양상을 보다 엘리트 계층의 통제와 연관지을 수 있는 사례는 북미의 중부 알라배마지역에서 미시시피문화기에 나타난 저장시설의 통시적인 변화양상을 들 수 있다. 초기 미시시피문화기(Early Mississippian period)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가구 내 수혈저장시설은 엘리트 파워가 강력해지는 시기에는 지역에 따라 완전히 소멸한다. 대신 잉여생산물의 공동체적인 취합과 관리를 반영하는 지상창고(above-ground granaries)가 이를 대체하며,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의 재분배를 넘어 잉여생산물의 통제와 곡물과 위신재의 광역적 교역에서 엘리트의 통제가 강했던 정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다음 시기(protohistoric and Historic phase)에는 가구 내 수혈저장시설이 재등장하며 점점 크기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4). 이러한 현상은 족장권력이 잉여생산물의 재분배를 수행하면서 갖는 영향력의 약화와 가구별 저장관리 체계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Wesse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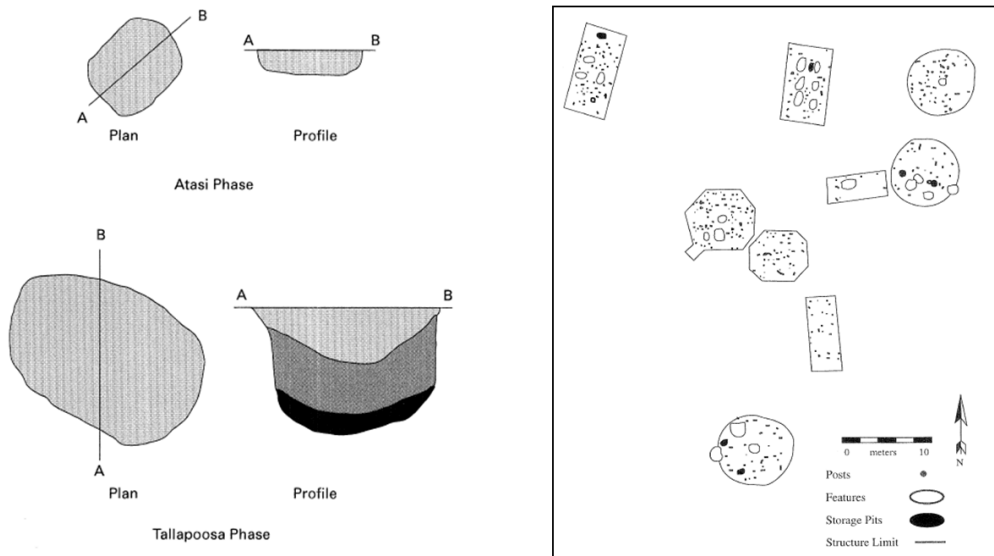


그림 4. Fusihatchee 유적의 Atasi기 (AD 1550-1715)와 Tallapoosa기 (AD 1715-1832)의 수혈저장시설(좌측)과 Atasi기의 주거지 (우측) (Wessen 1999에서 발췌).

3. 취락 간 혹은 광역적 네트워크 (extra-settlement, regional)

취락 간의 물질적인 교환은 필히 원시교역과 전문화를 동반한다. Kalinga 지역에서 행해진 Stark 등의 연구사례는 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집단을 기반으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취락 간 교역망이 설치되고 그 기능이 곡물교환, 생산물교환으로 확대되어가고, 광역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유물의 분석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분은 지역 내·부외에서 발생하는 전문화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농업생산력 부족 및 한계 가설(agricultural marginalization)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집단 간의 교역을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제로서 인식되어 왔다. 북부 필리핀지역에서 벼농사를 생업경제의 기반으로 하는 Kalinga-Apayao 지역의 Dalupa 부락인들의 토기 생산 및 주변 지역과의 토기교역에 관한 민족지적 관찰연구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Stark 1994, 1995). Dalupa 부락에서 주로 여성들이 토기를 만드는데 이 토기들은 인척관계로 연이 있는 인근의 Dangtala 부락들에 식료품과의 맞교환에서의 주요 상품이자 여분의 소득원으로 활용되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족은 토기 장인이 적으며, 토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유 중에는 잔치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토기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일부 가구에서는 오랫동안 토기를 빚은 나이 든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비전업적인 수준

의 분업화 된 토기생산을 주도하며 그 집중강도가 계절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 3-6월, 9-11월에 집중생산된 토기는 주로 9-11월에 교역되는 주기성을 띤다. 이러한 토기 교역은 벼 수확량이 떨어지는 시기에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들에서 벼 농사 외의 기타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 교역의 과정에 개입하는 개인이나 엘리트 집단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Stark 1994, 1995).

한편 북미의 중남부 인디언 부족 문화권의 사례들을 통하여 전문화와 원시교역의 발생에서의 농업생산력 한계 가설을 검토한 Harry(2005)의 연구에 따르면 근거리 지역에서의 공동체에 기반한 토기생산의 전문화와 교역은 인구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력 부족 가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농경생산성이 높은 곳에서도 발생하므로 그 원인은 단일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이 낳은 결과로서 보았다.

높은 농경생산성에도 토기생산전문화가 이루어진 경우, 국지적으로 작물생산이 일률적이지 않을 때, 흉년을 넘기고자 토기를 교역하는 양상, 부족/집단 내부에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토기생산이 전문화되거나, 일부는 특정한 토기를 빚을 수 있는 장인들에 의해서 생산전문화가 발달된다는 해석을 하였다. 또한 토기 교역 루트는 여러 산물이 교역되는 길로서 정보교환, 특히 환경에 대한 정보가 오가면서 흉년을 맞은 일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하였는데, 전문화와 원시교역은 일부 재화의 교환만이 아닌 물자와 정보가 전달되는 매개체로서 지역 내 전반적인 생계활동의 안정과 지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취락을 넘어서는 교역의 기저에 있는 친족관계에 기반한 선물교환의 양상 및 거래의 정황 또한 비전업적인 (파트타임) 전문화와 원시교역의 발생과정에 흥미로운 요소이다(Stark 1994, 1995), 물질의 교환이 혈연으로 묶인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출현하는 모습은 생산물의 수요발생과 공급방식이 문화적·혈연적 친연성을 지닌 집단들 간에 비물질적인 문화적·관습적인 맥락과 연관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전문화의 진전과 이를 분배하는 교역체계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부수적으로 파생시킨다. 이들은 몇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를 야기하는데, 1) 전반적인 생산량 증가, 인구부양력 강화와 이에 따른 인구증가, 2) 교역망의 재편에 따른 취락별 전문화 3) 안정적 생산체계의 확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Morrison 1994; Stark 1994, 1995).

농경생산체계의 경우, 지역 내 교역망에 연계하여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취락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보다 확장된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Lower Salt River 유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교역체계와 관개시설을 구축했던 북미의 호호캄(Hohokam) 인디언 문화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강한 지역 내 경제적 유대는 용수의 공급과 활발한 교역으로 인한 생

산력의 증대라는 이점 외에도, 불규칙한 환경변화에 관개시설의 관리 및 재난관리 차원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계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Nelson 외 2012).

VI. 결어

광범위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한정적으로 이론적 모델과 소수의 연구사례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 향후 상기한 개념화 작업과 모델의 구체화, 그리고 민족지 사례를 위시한 외국의 연구사례의 검토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고고학 자료에서 다양한 측면의 과거 ‘경제’의 모습을 규명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한반도 청동기시대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이를 위한 분석적 연구로는 1)토기를 비롯한 물질자료의 계량적 분석 및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전문화의 발생여부와 취락 내/간 생산과 소비의 양상을 파악 2)식물/환경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한 가구 내, 취락내의 생산과 소비의 영역의 인지 및 더 나아가 당시 취락별 농경생산체계의 생산력과 한계를 규명하는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축적이 진전되면, 청동기시대 경제의 형태를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 청동기시대 경제체계의 시공적인 범위, 성립과정, 전개와 소멸과정을 복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전개와 소멸의 원인과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곽종철, 2002, 「우리나라 선사-고대 논밭유구」,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한국고고학회 편, 학연문화사.
- 김범철, 2006, 금강 중하류역 송국리취락에 대한 가구고고학적 접근, 한국상고사학보 51.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 김장석, 2007,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17.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
- 김종일, 2009, 고고학자료를 통해 본 한국 선사시대의 여성, 백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고대 동아시아의 여성.
- 김영심, 2009, 한국 고대사회 여성의 생산활동, 백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고대 동아시아의 여성.

- 안승모, 2008,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作物組成 : 種子遺體를 中心으로」, 『호남고고학보』 28.
- 이홍중, 1997, 「韓國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韓國古代의 人間과 生活』 (韓國古代生活史 研究會 제 10회學術討論會).
- Costin, C. L., 2001, Craft Production Systems, in *Archaeology at the millenium Of Paradigms and Practice*, pp. 273-314., Springer Science.
- Costin, C. L. & Hagstrum, M.B, 1995, Standardization, Labor Investment, Skill, and the Organization of Ceramic Production in Late Prehispanic Highland Peru, *American Antiquity* 60(4).
- Cunliffe, B. (1991) *Iron Age communities in Britain*. Routledge, London.
- Godelier, M., 1978, The object and method of economic anthropology, In Seden(ed). *Relations of Production: Marxist Approaches to Economic Anthropology*, London: Frank Cass.
- Gumerman, G., 1997, Food and Complex Societies,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4 (2).
- Harry, K.G. 2000, Community-Based Craft Specialization: The West Branch Site. In *The Hohokam Village Revisited*, edited by David E. Doyel, Suzanne K. Fish, and Paul R. Fish, pp. 197-200. Southwestern and Rocky Mountain Divisio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Glenwood Springs, Colorado.
- Hayashida, F.M., 1999, Style, Technology, and State Production: Inka Pottery Manufacture in the Leche valley, Peru., *Latin American Antiquity*, 10(4).
- Harry, K.G., 2005, Ceramic specialization and agricultural marginality: Do Ethnographic Models explain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pottery production in the prehistoric American Southwest?, *American Antiquity* 70(2).
- Hayden, B., 2001, Richman, Poorman, Beggarman, Chief: The Dynamics of Social Inequality, In *Archaeology at the millenium Of Paradigms and Practice*, pp. 231-266., Springer Science.
- Kujit, I., 2008, Demography and Storage Systems During the Southern Levantine Neolithic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Neolithic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Consequences*, USA: Springer.
- Kujit, I., 2009,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Food Storage, Surplus, and Feasting in Preagricultural Communities? *Current Anthropology* 50(5).
- Morrison, K., 1994, The intensification of production: Archaeological approaches.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2(1).
- Nelson, M.C., Hegmon, M, Kintigh, K.W., Kinzig, A.P., Nelson, B.A., Anderies, J.M., Abbott, D.A, Spielmann, K.A., Ingram, S.E., Peeles, M.A., Kulow, S., Strawhacker, C.A., Meegan, C., 2012, Long-term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Three examples from Archaeological Study in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and Northern Mexico, *Surviving Sudden Environmental Change-Answers from Archaeology*, Colorado: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Peregrine, P., 1991, Some Political Aspects of Craft Specialization, *World Archaeology* 23(1).
- Roux, 2003, Ceramic Standardization and Intensity of Production: Quantifying Degrees of Specialization, *American Antiquity* 68(4).
- Spencer, J. E. & Stewart, N. R., 1973, The nature of Agricultural System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3(4).
- Stark, M. T., 1994, Pottery Exchange and the Regional System-a Dalupa Case Study, in William A. Longacre & James M. Skibo (eds.) *Kalinga Ethnoarchaeology*.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69-197.
- Stark, M., 1995, Economic intensification and ceramic specialization in the Philippines: A view from Kalinga, *Research in Economic Anthropology* 16: 179-226.
- Stevens CJ (2003) An investigation of agricultural consumption and production: models for prehistoric and Roman Britain, *Environmental Archaeology* 8:61-76.
- Van der Veen, M., and Jones, G., 2006, A re-analysi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British Iron Age, *Veget Hist Archaeobotat* 15.
- Wessen C.B., 1999, Chiefly Power and Food Storage in Southeastern North America, *World Archaeology* 31(1).